

「국정원 정오표」

124p

4번 선지 번호가 ④이 아니라 ③으로 표기되어 있음.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아까 글을 읽으면서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별할 수 있었다.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아까 내가 주의해서 읽었던 부분에서 선택지가 나왔다. 이덕무는 명이 중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말은 틀렸다.

24p

2번째 문단 2번째 줄 '이해하기 어려운지 문들을'이라고 작성되어 있음.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들을'이라고 수정해야 함.

그렇다면 머리에 어떻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처음 읽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지 문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 부딪혀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글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한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독해력과 사고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25p

'특'에 파란색 표시가 안 되어 있음.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습관 4가지

11.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12.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13.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14.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CONTENTS	
독해편	
CHAPTER 1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성세한' 습관 4가지
한 학생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74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0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79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23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84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91
•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7	CHAPTER 2
•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2	내가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 칠 때 가져야 할 태도
•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외도 4분이다, 다시 읽기 37	1. 시간 절대 보지 않기 화학, 언어 15분, 문학 20분, 독서 40분, 마킹 5분이라는 환상 100
• 최상위권들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42	2. 함부로 과감하지 마라 102
•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교수님과 1대 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46	3. 결국 침착함이 전부이다 102
•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이 감지하기 49	4. 지문이 쉬워 보이는 순간을 조심하라 104
•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54	5. 배경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순간 틀린다 104
• 모든 글은 한 쪽의 그림이다, 이미지화하기 58	6. 어려운 문단은 2, 3개 밖에 없다 105
•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설명 만들기 63	CHAPTER 3
•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재구성하기 71	이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할 때
	1. 하루에 몇 지문 풀어야 돼요? 108
	2.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108
	3. 시기별 공부법 108
	4. 시험 친 직후 드는 회의감 110
	5. 기출 문제 분석법 110

CONTENTS	
독해편	
CHAPTER 1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성세한' 습관 4가지
한 학생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74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0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79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23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84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91
•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7	CHAPTER 2
•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2	내가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 칠 때 가져야 할 태도
•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외도 4분이다, 다시 읽기 37	1. 시간 절대 보지 않기 화학, 언어 15분, 문학 20분, 독서 40분, 마킹 5분이라는 환상 100
• 최상위권들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42	2. 함부로 과감하지 마라 102
•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교수님과 1대 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46	3. 결국 침착함이 전부이다 102
•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이 감지하기 49	4. 지문이 쉬워 보이는 순간을 조심하라 104
•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54	5. 배경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순간 틀린다 104
• 모든 글은 한 쪽의 그림이다, 이미지화하기 58	6. 어려운 문단은 2, 3개 밖에 없다 105
•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설명 만들기 63	CHAPTER 3
•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재구성하기 71	이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할 때
	1. 하루에 몇 지문 풀어야 돼요? 108
	2.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108
	3. 시기별 공부법 108
	4. 시험 친 직후 드는 회의감 110
	5. 기출 문제 분석법 110

빨간 박스 2개 중 아래 빨간 박스에 있는 글자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 2번 들어감.)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변경)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을 마두고 넘어가다며 추부하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경상 수지가 극도로 흑자이거나 극도로 적자가 되는 등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 같다.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세상에 엄청 뿌려지거나, 거의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환율이 항상 ±1%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환율이 항상 ±1%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달러가 항상 적당한 양만큼 세상에 뿌려져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금 환 본위제'에서 '달러'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이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그 달러에 맞춰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다. 그런데 그런 달러의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면 어떨까? 달러를 많이 뿌린 탓에, 어떤 날은 1달러가 500원까지 내려가고, 달러를 적게 뿌린 날은 갑자기 1달러가 2000원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를 믿지 못할 거고, 결국 달러를 '국제 유동성'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달러는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돈'이자 '기준이 되는 돈'인 만큼,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달러의 환율이 항상 ±1%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즉, 달러가 항상 적정하게 뿌려져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납득한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으니까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고정했고, 일본은 1달러에 100엔이라고 고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엔화의 환율은 '1000원 = 100엔'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교차 환율'의 제시된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자.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